

영어 유창성에 관한 연구: 영어 연수 참가자들의 자기평가와 원어민 진단 평가를 중심으로*

전홍식
(영산대학교)

Chon, Hongsik. 2012. A Study on the Fluency in English: Based on English Trainees' Self-evaluation and Their Instructors' Diagnosi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0(2). 129-144. According to the 2008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teacher's proficiency is key element in achieving English teaching goals of the seventh curriculum, based on student's communicative abilities. Thus the teacher's intensive in-service program has expanded in trainee numbers as well as supporting budgets since it starte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beliefs of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nsive in-service program about their English ability in terms of four skills, then analyzes their proficiency in the pre-test with their native instructors, and on-going tests with their native advisory instructors. The findings from the teachers is that they have confidence in grammar but believe they have weaknesses in listening and speaking. Half of them believe their English abilities are lower than "good. But the native instructors find that the teachers' grammatical errors and mispronunciations are relatively minor. The native instructors evaluate the English teachers' speaking and listening abilities as much higher than "good" in terms of oral proficiency. The paper suggests that the curriculum of the teacher training program should put more focus on accuracy rather than fluency, and should also provide more opportunities to practice speaking through a variety of activities that provide an opportunity for self-correction, to build confidence. Finally they have to change their attitude about their oral proficiency.

주제어(Key Words): 구사력(proficiency), 정확성(accuracy), 유창성(fluidity),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ve abilities), 국내 교사 연수 프로그램(teacher's intensive in-service program), 자신감(confidence),

* 본 논문은 2011년 영산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금으로 작성됨.

1. 서론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015년까지 원어민 강사 도움 없이 중등 영어 수업을 영어로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TEE)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03년부터 영어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도부터는 연수에 관한 운영, 인원 및 교사 선택권, 성과 평가 등을 시·도 교육청 별로 특색에 맞게 자율성을 강화하고 심화 연수와 직무 연수를 연계한 운영을 목표로 '5(국내) + 1(국외)' 의 6개월 장기 연수 과정으로 운영했다. 2011년부터는 심화연수를 '3(국내)+3(국외)' 체제로 개선하여 확대하여 실시 중이다. 국내 심화연수 형태는 '수업 실습형' 과 '영어능력 함양형'으로 세분화하는 등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원어민 수업, 학급 규모나 입시제도 등의 구조적인 외부 환경을 고려할 때,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로 영어 교사의 수업능력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영어교사 연수가 더욱 중요 해지고 있다. TEE의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여러 변인들이 있겠지만 Choi(2008:5)는 교사들의 영어 유창성이 성공적인 영어 교육의 가장 중요 요소라고 평가했다.¹⁾ 이길영(2000:339)은 21C의 영어교육은 우수교사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우수교사의 특질로 언어 구사력, 전공 분야 이론의 습득, 교수 기술 등을 지적했다²⁾. 따라서 영어교사 연수관련 연구에서도 유창성 증진을 위한 많은 방안들이 필요하고 좀 더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자기 평가를 통한 유창성에 관한 종전의 연구를 보면 공통적으로 자신감 부족을 발견 할 수 있다. 김은주(2009:224)에 의하면 교사들이 유창성에 관하여 부담을 갖고 있으며 자신감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재혁(2001:145)과 신길호(2010:97)는 TEE로 수업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들의 자신감 부족과 영어 사용을 통한 지도에 대한 불안감 이라고 지적 하였다. 전반적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우수 교사의 요건 중 하나로 영어 유창성이 중요하지만 유창성 부족으로 영어 수업에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설문을 이용하여 자가 평가를 하여 통계 처리한 결과로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 객관성이 부족할 소지가 있다.³⁾ 또한 배두본(2000:124)의 주장대로 영어 교사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나 인식이 추상적이고 피상적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영어 교사들이 유창성과 관련하여 자신감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좀 더

- 1) Lazaraton(2001:104)은 유창성 두 가지 견해로 본다고 소개한다. 머뭇거리림 없이 원만한 속도로 말을 이어가는 능력을 유창성으로 보는 견해와 또 다른 견해는 실수가 적으면서 요령 있고 자연스런 언어 구사 능력의 두 가지 이다. 본고에서는 두 번째 정의에 준거해서 논의한다.
- 2) 이길영(2000:340)은 위의 요소 외에 인성과 사명감을 언급하지만 본고에서는 언어 유창성에 국한하여 논의 주제로 다루기로 한다.
- 3) 예를 들어 사전 요구분석(need analysis)이나 사전 평가 등에서 고급반이나 중급반에 편성되기 위해서 목적으로 자신의 영어 능력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 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언어의 기능 중 어느 영역에 자신감이 있고 반대로 어느 영역에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영역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들의 연수를 담당한 원어민 강사들을 통하여 영어 교사들의 구체적인 장단점을 확인하여 교사들이 인식하는 자가 평가와 원어민 강사들이 지적하는 장단점의 차이나 일치 여부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장·단점에 관련된 구체적 요소들을 발굴하여 교원 연수 교육과정 수립과 운영에 반영하여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2. 문헌연구

2.1 유창성 및 자신감에 관한 사전 연구

EFL 환경에서는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영어정보를 제공하고 모방하는 중요한 입력 수단임을 감안할 때 영어교사들의 유창성은 수업 효과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들이 영어 수업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 교육 효과를 고려 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현진(2009:59)은 영어교사들에게 영어로 수업해야하는 상황 자체가 교사의 영어 말하기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 불안감을 야기 시킨다고 했다. 음성언어로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을 진행 할 때 자신의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적을수록 불안감이 높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교사들은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을 지양하고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지향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영향의 결과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⁴⁾ Yang(2009:175)에 의하면 초·중등 교사가 영어로 한 시간의 수업을 진행 할 때 50.2%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⁵⁾ Choi(2008:4)는 교실수업에서 영어구사력에 사회의 불만족으로 영어교육 전체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김현진(2009:60)도 영어 구사력이 부족하면 영어를 가르치는데 불안감을 느끼고 영어지도 능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영어 구사능력은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수업 효과에도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로 작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사들이 스스로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도록 교원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김재혁(2001:145)은 64명의 초등 영어 연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통해 자신의 영어 능력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연수 집단의 응답자 중 56%가 자신의 영어 능력

4) Johnson and Golombek(2002)은 교육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믿음은 주로 학습과 교육에 관련된 과거 경험으로부터 구축한다고 했다.(Choi 2008:9 재인용)

5) 신길호(2010:95)는 연수 경험 교사와 비 경험 교사간의 자신감 및 불안감에서는 연수 경험 교사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을 “중”으로 평가 하였다. “중상”으로 평가한 교사들은 7%에 불과하였다. 교사 스스로 영어 능력에 대해서 평가 할 때 낮춰 평가하는 경향을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연수 효과에 관한 사전 연구

김재혁(2001:146)과 우길주(2010:216)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의 유창성 및 수업기술 개선에 국내 연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양(2009:180)은 설문조사의 결과, 전체적으로 74%가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⁶⁾ 또한 국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2006년도 교육부 발표에도 참여자의 90% 이상이 교육목표, 교육과정, 그리고 그들의 언어능력과 수업기술 개선에 만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관련된 논문들을 참고로 하여 살펴보면 연수에 대한 교사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김재혁(2001:175)연구의 자신감 관련 내용을 보면 73%의 응답자가 연수 후에도 자신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수 프로그램이나 연구는 앞서 만족도 중심의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고의 유창성에 관한 특정 영역을 나누어 분석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3. 유창성 확보의 필요성

교원 연수에 관한 연구 영역은 시설이나 환경 등 수업 능력외의 구조적인 영역과 영어 능력, 수업 기술, 수업 이론 등 수업 능력에 관한 교과 지식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수업 능력에 관한 연구는 객관적 측정이 어렵다 보니 만족도 조사 등 주로 심리적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김현진(2009:48)은 교사들의 외국어 교수 불안감 연구에서 교과지식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가르치기, 문법지도, 모르는 내용, 영어사용 오류, 말하기 지도, 잘못된 발음 등에서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며 그 다음으로는 영어 말하기 능력이 직접 드러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교과 지도 지식이나 이해도, 문자 언어 기능 등에서는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다.⁷⁾ 따라서 교사들은 안정된 수업을 위해 불안감이 적은 교과 지식이나 문자 언어 기능중심으로 수업하려는 경향을 가질 우려가 있다. 배두본(2000:125)도 교사들은 자신감 있는 영역에 수업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는 곧 유창성이 부족한 교사들은 교사들의 구두 언어를 주로 사용해야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을 피하게 된다는 뜻이다. Choi(2008:21)는 교사들에게 적절한 구사력 교육 목표(proper proficiency goals)를 물었을 때 용법(usage)이 사용(use) 보다 더 핵심적 요소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⁸⁾

6) 프로그램 목표의 적절성, 교육과정, 프로그램 관리, 평가의 적절성, 프로그램의 효율성 등의 종합적인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이지 영어 유창성에 관한 평가가 아님을 주목 해야 한다.

7) 신길호(2010:94)는 TEE 수업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교사들의 비율이 55.2%에 이른다고 했다.

8) Johnson and Golombek(2002)은 교육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믿음은 주로 학습과 교육에 관한 과거 경

교사들의 유창성이 확보되어야 수업 불안감 해소는 물론 현행 교육과정의 목표인 의사소통 중심 교육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효과적인 영어연수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다루게 될 연수 참여자와 원어민 강사들의 유창성에 관련된 언어 영역별 평가 자료가 이들의 유창성과 자신감 확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수립에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3. 유창성에 관한 자가 평가와 원어민 진단

3.1 설문 대상자 및 설문의 특성

본 연구는 특정 대학교의 단기 교원 연수에 참여했던 중등학교 영어 교사 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세 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남녀 구성비는 남 5명, 여 21명으로 되어 있다. 중등 구성 분포는 중학교 교사가 12명이고 고등학교 교사는 14명이었다. 이들 중 4명은 해외 연수 경험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미국에 2명, 캐나다에 2명이 1달씩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연수 참여자들 중 16명은 이번 연수를 받기 전에 이미 교과부의 장·단기연수 경험이 있는 반면, 10명은 이번이 처음으로 받는 연수였다. 교육 경력은 5년 미만이 2명, 5-10년은 5명, 10년 이상은 19명이었다. 즉 여자 교사가 많고 연수 무경험자와 유경험자가 섞인 혼합 반이며 교육 경력은 5년 이상의 중견 교사들이 많다는 특징을 지닌 연수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3.2. 영어 능력에 관한 자가 평가 결과

3.2.1 설문의 성격 및 특성

본 연구에서는 연수 참여자들이 선택형 설문 방식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설문은 본인의 장점 및 단점, 영어 구사력 정도에 대한 자가 평가, 개선해야 할 영역을 선택형으로 물었으며 본고에서는 듣기, 말하기, 문법, 쓰기, 발음 등의 언어 능력에 해당하는 항목만을 활용했다. 해당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중복 선택도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 총량적으로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본인의 장점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언어의 네 영역 중 장점이 있는 영역을 선택 하도록 하였다. 영어 교사들은 압도적으로 영어 문법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영역에서는 선택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협으로부터 구축한다고 했다. (Choi 2008:9 재인용) 문법 위주의 교육 영향이라고 추측 할 수도 있다.

문법 교육 영역에서는 불안감도 적고 영어의 실제 사용보다는 사용법에 자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뒤의 3절에서 보게 될 원어민 강사들의 사전 테스트나 수업 중 담임 원어민 강사들의 진단 결과를 보면 원어민들은 교사들의 약점으로 오히려 연수 참여 교사들의 문법적 실수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이는 영어 교사들은 문법적 지식이 많았으니 문법 영역에 자신감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실제 발화시에는 문법적 실수에 대해서 원어민들의 지적 사항으로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듣고, 말하기등 유창성에 관련된 교육 과정 중심의 연수가 일반적이지만 정확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⁹⁾

표 1. 본인의 장점에 관한 질문
질문: 본인 영어의 장점은? (중복 선택 가능)

| 영역 | 빈도수 | 비율(%) |
|---------------|-----|-------|
| 말하기(speaking) | 3 | 9.4 |
| 듣기(listening) | 6 | 18.8 |
| 문법(grammar) | 21 | 65.6 |
| 쓰기(writing) | 2 | 6.2 |
| 합계 | 32 | 100 |

두 번째로는 본인의 단점에 관한 질문을 이었다. 언어의 네 영역 중 단점이 있는 영역을 선택 하도록 하였다. 표 2)에서처럼 설문 응답자들은 말하기와 듣기 능력에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설문 참여자 모두가 말하기에 약점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다음절에서 원어민 강사들의 평가와 비교해 보면 자신감 측면에서 상반된 결과이다. 교과부가 인증하는 영어교사 자격증이 있고,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하여 이미 적정 수준의 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이지만, 2.2에서처럼 일정 연수 기간 동안 계획된 내용으로 연수를 마친 후에도 자신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본인의 단점에 관한 질문
질문: 본인 영어의 단점은? (중복 선택 가능)

| 영역 | 빈도수 | 비율(%) |
|---------------|-----|-------|
| 말하기(speaking) | 26 | 45.5 |
| 듣기(listening) | 14 | 24.5 |
| 문법(grammar) | 1 | 1.75 |
| 쓰기(writing) | 16 | 28 |
| 합계 | 57 | 100 |

9) Chang(2010:142)은 영어능력을 연수생들이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따라서 연수 과정에서 심리적인 성취감을 통하여 자신감 확보를 지향하는 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임을 알 수 있다. 유창성은 물론 자신감 확보에도 가중치를 두고 연수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언어 구사력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앞 절 2.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응답자 대부분이 자기 영어 구사 능력을 낮게 평가 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었다. 본고 질문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영어 구사능력을 “중 하” 이하라고 평가하고 있다.

표 3. 언어 구사 능력(oral proficiency)
 질문: 언어 구사능력(oral proficiency)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영역 | 빈도수 | 비율(%) |
|-------------------------|-----|-------|
| 초급(beginning) | 9 | 34.6 |
| 중 하급(low intermediate) | 15 | 57.7 |
| 중 상급(high intermediate) | 2 | 7.7 |
| 상급(advance) | 0 | 0 |
| 합계 | 26 | 100 |

김재혁(2001:145)의 초등 영어 연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에서 연수 집단의 응답자 중 7%만 자신의 영어 능력을 “중” 이상 으로 평가한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10여년이 지난 근래까지도 언어 구사력에 대한 영어 교사들의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의 연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던 원어민 강사들도 연수 교사들의 이러한 자기 평가와 유사하거나 일치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시사점은 없는지를 밝히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다음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기술 외에도 고려해야 할 여러 변인들이 있을 것이다. 언어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분야에 관한 질문에서 연수 참여자들은 말하기와 듣기 이외에 발음과 수업기술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영어 교사들은 발음과 수업기술도 연수 중 훈련을 통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Choi(2008:21)의 연구에서 나타났던 문법적 지식을 영어 교육의 핵심 요소로 믿는 예비교사들과는 다르게, 현장 교실 수업에서는 좋은 영어 교사의 요건으로 구두 언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본인이 좋은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분야
 질문: 본인이 좋은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분야는?

| 영역 | 빈도수 | 비율(%) |
|-----------------------|-----|-------|
| 말하기(speaking) | 24 | 38.1 |
| 듣기(listening) | 12 | 19.0 |
| 발음(pronunciation) | 12 | 19.0 |
| 수업기술(teaching skills) | 15 | 23.8 |
| 합계 | 63 | 100 |

앞 설문에서 말하기 영역에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응답한 것과 아래 표에서 보듯이 좋은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하기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같은 항목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교사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교원 연수는 말하기 능력 개발을 위주로 하는 연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다음 질문으로 영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역에 관한 질문에서 말하기 영역에 집중하기를 희망했다.

표 5. 영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역
 질문: 현재 참여중인 연수 프로그램에서 영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할 영역은?

| 영역 | 빈도수 | 비율(%) |
|-----------------------|-----|-------|
| 말하기(speaking) | 25 | 39 |
| 듣기(listening) | 16 | 25 |
| 발음(pronunciation) | 13 | 20.3 |
| 수업기술(teaching skills) | 10 | 15.6 |
| 합계 | 64 | 100 |

교사들이 연수를 통하여 수업기술과 언어기술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연수 참여 교사들은 물론 연수 주관 부서나 교과부등 관련자 모두의 공통적인 바램 일 것이다. 2011년 이전까지의 연수 주관기관의 교육과정에는 대부분 언어기술과 수업기술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수립이 일반적 이었다(Yang 2009:178). 그러나 필자의 연수 관리 경험으로 보면 연수 참여자들은 대개 교육 경력이 있는데다가, 제한된 연수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가장 필요한 영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수업기술에 관련된 교과목은 줄이고 유창성 관련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있었다. 연수생들이 영어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말하기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제한된 연수 기간 중 언어기술과 수업기술이라는 두 가지 영역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할 때 2011년부터 영어교사 심화 연수를 '3(국내)+3(국외)' 체제로

개선하면서 국내 연수 형태도 ‘수업 실습형’ 과 ‘영어능력 함양형’등으로 심화 연수를 나누어 특화한 것은 이러한 교사들의 요구 분석을 반영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3.2 원어민 평가

3.2.1 사전 테스트 평가

3.2.1.1 사전 평가 방식 및 항목

교원 연수에 참여한 원어민 강사 중에서 4명을 선정하여 연수 시작 전 배치고사 (placement test) 성격으로 연수 참여 교사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장 단점을 자유 기재 방식으로 적도록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배치고사 테스트에서는 원어민 강사 2명이 한 조가 되어 두 개조 4명이 강사와 연수 참여자간의 2:1 방식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정해진 시간 동안에 대화, 그림 묘사, 설명, 의견 발표의 4개 평가 분야를 1:1 면접 방식으로 질문을 통하여 발음, 문법, 어휘, 유창성, 이해도 등을 인터뷰를 통해서 진단하였다. 원어민 2명이 한 조가 되어 번갈아가며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드러나는 강점이나 약점에 해당되는 항목을 분석하여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해당 항목들을 자유기술 하도록 하였다.

3.2.2. 사전 평가 내용

3.2.2.1 연수자들의 장점

원어민 강사들이 연수 시작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나타난 특징은 대화나 그림 묘사 그리고 설명 등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연수생들이 영어를 구사할 때, 듣기와 말하기는 우수한 것으로 진단했다. 의사 전달력이나 유창성도 매우 좋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연수 참여 교사들은 유창성 측면에서는 우수함을 알 수 있다.¹⁰⁾ 이는 앞 절에서 본인들의 자가 평가에 의하면 본인들은 일관되게 말하기와 듣기 부분에서 약하다고 하지만, 원어민 강사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들의 영어 구사력에는 별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듣기와 말하기 두 개 항목을 동시에 장점으로 평가 하고 있다. 결국 심리적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10) 객관화를 위해 원어민들에게 100점 만점 기준으로도 점수를 부여하고, 동시에 주관적인 자유 기재방식으로 장, 단점을 적도록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자유기재 방식으로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분석 하였다. 또 장점 빈도수가 높을수록 연수 참여 교사 집단이 우수하다고 보았다.

표 6. 연수자들에 대한 장점 항목

| 영역 | 빈도수 | 비율(%) |
|-----|-----------|-------------|
| 말하기 | 11 | 42.3 |
| 듣기 | 10 | 38.5 |
| 발음 | 2 | 7.7 |
| 문법 | 1 | 3.8 |
| 어휘 | 2 | 7.7 |
| 합계 | 26 | 100 |

3.2.2.2 연수자들의 유창성 관련 단점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나는 연수자들의 약점으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어민 강사들은 연수 참여자들이 어휘력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연수 전 사전 테스트에서 원어민 강사들은 연수 참여자들의 발화시, 사소한 문법적 실수들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3.2에서 연수 참여자들은 스스로 문법이 가장 자신이 있는 영역이라고 자기 평가를 했지만, 언어 지식으로 갖고 있는 영어 문법 지식이 실제 발화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뷰로 인한 긴장감도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유창성 확보를 위한 실습 부족에서 기인되고 있다고 보며, 더 많은 연수 참여 등의 실습 기회를 통한 훈련으로 자가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만 교실수업 현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비중은 낮지만 발음 또한 지적되는 단점이다. 원어민과 가장 구분이 잘 되는 영역이 발음이다. 정확한 발음은 영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권위를 유지 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연수 시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과목으로 반영 되어야 할 것 같다.

표 7. 연수자들에 대한 단점 항목

| 영역 | 빈도수 | 비율(%) |
|-----------|-----------|-------------|
| 말하기 | 0 | 0 |
| 듣기 | 0 | 0 |
| 발음 | 4 | 15.4 |
| 문법 | 18 | 69.2 |
| 어휘 | 4 | 15.4 |
| 합계 | 26 | 100 |

3.3 지도 교수(advisor)의 평가

3.3.1 평가 방식

26명의 연수생들을 3개 반으로 나누어 4주간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각 반마다 원어민 1명씩이 지도교수로 지정되어 1주일에 1번씩 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언어적 특징과 교과목 수업 중 on-going test 내용을 바탕으로 2주에 1회씩 도합 2회에 걸쳐 각 연수생들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해당 항목들을 적도록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원어민 지도교수에게 연수생들의 발음, 어휘력, 이해도, 말하기, 표현력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한 후 자유 기재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

3.3.2 평가 내용

3.3.2.1. 연수자들의 유창성 관련 장점

원어민 강사들은 연수에 참여한 영어 교사들의 절반 이상을 말하기 영역에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말하기와 발음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대부분 연수 참여자들은 영어 구사력과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에 의하면 대부분 영어 교사들은 영어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창성이 좋은 것으로 진단했다.

표 8. 연수자들의 장점

| 영역 | 빈도수 | 비율(%) |
|-----|-----|-------|
| 말하기 | 14 | 53.8 |
| 듣기 | 3 | 11.5 |
| 발음 | 7 | 26.9 |
| 문법 | 0 | 0 |
| 어휘 | 2 | 7.7 |
| 합계 | 26 | 100 |

표 8.의 결과는 사전 테스트에서 실시한 원어민들의 진단과도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앞 절에서 영어 연수 참여자들의 영어 구사력에 대한 자가 평가와는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주목 할 점은 연수 전 대체적으로 원어민들이 교사들의 발음을 단점으로 지적 했었으나 연수과정에서 원어민 담임강사들은 발음을 단점으로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그 원인을 연수중 교육의 효과로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로 단기간 연수를 통하여 가장 뚜렷하게 변화 시킬 수 있는 영역이 발음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길영(2000:350)은 학생들이 영어 교사하면 떠오르는 요소 중 수업 태도 및 방법(24%), 외모 및 성격(19%)등의 언어 외적 요소를 제외하고 가장 비중이 큰 언어적 요소로는 발음(18%)을 지적했다. 즉 학생들에게는 영어 교사로서 첫 번째 언어적 요소가 발음임을 감안 할 때 효과적인 수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사의 발음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연수과정에서 발음 교육을 포함 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3.3.3.2 연수자들의 유창성 관련 단점

앞 절 사전 평가에서도 원어민 강사들은 연수 참여자들이 문법적 실수들이 많음을 지적했다. 지도 교수들의 평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말하기 훈련을 통한 사소한 문법적 실수들을 줄이는 것이 연수과제로 분명하게 입증된다. 그러나 지도교수들의 평가에 의하면 영어 연수 교사들이 대체적으로 영어에 대한 이해도나 언어 구사력에 관련된 유창성에는 우수하지만 적절한 어휘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본인이 알고 있는 다양한 영어 표현들을 적절한 어휘로 표현하지 못하고 단순한 문장 구조와 기본적인 어휘만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연수자들의 약점

| 영역 | 빈도수 | 비율(%) |
|-----------|-----------|-------------|
| 말하기 | 1 | 3.8 |
| 듣기 | 5 | 19.2 |
| 발음 | 3 | 11.5 |
| 문법 | 10 | 38.5 |
| 어휘 | 7 | 27.0 |
| 합계 | 26 | 100 |

영어교사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수업 효과에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임을 고려한다면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영어에 대한 어휘력 확대해야 하고 또한 가장 많이 지적된 사소한 문법적 실수를 줄여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4.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교사연수에 참여했던 영어 교사들의 자기 평가와 원어민 영어 강사들의

인터뷰 및 수업 중 on-going test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영어 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면 원어민 강사들은 내국인 영어 교사들의 영어 능력을 전체적으로 우수하다고 보며 구체적으로 듣기는 물론 듣기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 이해력도 장점으로 보는 반면에 내국인 연수 참여자들은 자신의 영어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 스스로를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중하” 이하로 낮게 평가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¹¹⁾ 이러한 경향은 김재혁(2001)과 진경애(2002:402)의 조사 결과부터 우길주(2010)와 신길호(2010)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연수 참여 교사들은 그동안 실시해온 영어 심화연수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지만 자신감 확보까지는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따라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감을 확보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TEE 수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두 번째로 영어사용에 관한 지식을 언어기능 측면에서 평가할 때, 연수 참여 교사들은 문법 영역에 가장 강점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말하기와 듣기 영역에 단점이 있다고 자기 평가를 하였다. 심화 연수과정에서 본인이 가장 많이 훈련해야 할 영역 또한 말하기와 듣기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원어민 강사들은 내국인 연수 참여자들이 스스로 강점이라고 평가한 문법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문법적 실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그 외에 부정확한 발음, 적절한 어휘선택 능력의 부족 등을 연수 참여자들의 약점으로 지적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문법적 실수 내용을 보면 복수, 관사, 전치사 선택이나 시제 구분 등 사소한 실수들이 주로 지적이 되었다. 발음의 경우는 모음의 음가가 부정확하여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들을 지적하였다. 또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느라 주저함이 있고 정통적인 어휘 선택이 필요하며, 자연스런 표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영어 연수의 방향은 유창성(f도 중요하지만 정확성 확보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되도록 교과목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5. 결론

영어교사 연수의 기본 목표는 영어 기본능력 신장이지만 수업능력까지 연장하여 TEE 수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르치는 교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서로 다르다 보니 연

-
- 11) Kim(2009:224)은 특히 경험 있는 교사들이 그들의 영어 구사력(proficiency)에 대해 더 낮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 배두분(2000:121)은 영어 교사 교육의 문제점으로 구조적인 문제점과 인식적인 문제점으로 나누었는데 인식적인 면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13) 신길호(2010:97)는 TEE로 수업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들의 자신감 부족과 영어 사용을 통한 지도에 대한 불안감 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어 교육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교사 연수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 기관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맞춤형 연수로 전문성 향상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연 비용과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시대적 요구에 맞는 영어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영어교사들의 교육 내용과 방법도 변해야 한다. TEE를 목표로 하는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영어 교육에서 교사 역할과 능력이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연수 결과도 효과가 있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현재 연수 실시기관들이 이미 교사 자격을 갖춘 영어 교사들을 재 교육 또는 보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연수 참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EE 수업에 도움이 되는 연수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교사 연수에 참여하는 영어 교사들의 영어 능력에 대한 자가 평가와 원어민 영어 강사들의 내국인 영어교사에 대한 진단을 비교하여 유창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영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는 교과목과 활동들을 도입해야 한다. 교원연수에서 필요한 부분은 유창성에 대한 자신감 확보를 통하여 수업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연수의 중요한 목표가 되기를 제안한다. 왜냐하면 본고에서 나타나듯이 원어민 강사들의 진단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수 참여 교사들이 유창성에는 평균 이상의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근래 영어 교육의 추세는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치중하는 교육이 일반적인 추세지만 교사 연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창성보다는 정확성에 치중해야 한다고 본다. 평소 훈련 및 연습 부족으로 기본적인 문법적 실수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선택, 그리고 완성된 문장 형성 능력이 부족하다는 원어민 강사들의 진단에 근거한다.

셋째로 실제 훈련을 통하여 자가 수정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문법적 실수를 줄이고 적절한 어휘 선택으로 의미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 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언어기술과 수업기술 중 언어기술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발음 교육 등을 통해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훈련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¹⁴⁾ 연수 종료 시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자동성(automaticity)이 확보 되도록 주로 과업 중심 교수법을 적용하여 말하기 훈련 중심의 연수가 이루어진다면 본고에서 논의한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¹⁵⁾

14) 본인의 연수 경험으로 보면 교육 경력이 많을수록 교사들은 교수 이론이나 실습 등 수업기술(instructional skill)보다는 영어 유창성 보강에 관심을 더 갖는다.

15) 익명의 심사위원이 주신 제안을 참고함

참고문헌

- 김재혁. (2001). 초등영어 교사 연수의 효과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연구*, 13(1), 131-161.
- 김현진. (2009). 예비 초등교사의 외국어 교수 불안감 연구. *언어학 연구*, 15, 39-65.
- 민찬규. (2006). 중등 영어교사 심화 연수 효과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연구*, 5(1), 27-45.
- 신길호. (2010).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교육'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모색. *언어학 연구*, 18, 79-99.
- 이길영. (2000). 21C영어 교사 무엇이 요구 되는가? *영어교육 연구*, 12(1), 337-369.
- 배두분. (2000). 영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영어 교육 연구*, 12(1), 113-144.
- 배두분. (2002).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의 조건과 교사의 역할. *영어교육 연구*, 12(1), 337-369.
- 우길주·김성연·김혜련·이소영. (2010). 초·중등 영어교사 관점에서 본 장기 심화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 *영어 교육*, 65(2), 199-223.
- 진경애·김명숙·이완기. (2002). 초등 영어교수 능력 진단 도구 개발 및 적용연구. *영어 교육*, 57(2), 395-422.
- Johnson, K., & Golombek, P. (2002). Inquiry into experience: Teacher's personal and professional growth. In K. Johnson & P. Golombek (Eds.), *Teacher's narrative inquiry as professional development* (pp. 1-1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zaraton, A. (2001). Teaching oral skills.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3rd ed.) (pp. 103-115). Heinle & Heinle
- Chang, K., Jung K., Hayes D., Yeon J., Kim W., & Lee, B. (2010). In-service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 evaluation. *English Teaching*, 65(3), 3-27.
- Choi, J. (2008). Teacher-learner's beliefs about proficiency goals and teaching methods for Korean secondary English education. *English Teaching*, 63(1), 129-165.
- Kim, E. (2009). To transform or not? *English Teaching*, 64(4), 223-248.
- Yang, S. (2009). A study of the intensive in-service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 in Korea. *English Teaching*, 64(3), 175-194.

전홍식

612-743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249번지

영산대학교 외국어 대학 영어학과

전화: (051) 540-7085

이메일: chonhs52@ysu.ac.kr

Received on March 18, 201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ne 5, 2012

Accepted on June 5, 2012